

가수 송가인, 전남 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탰다



전남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고향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뜻을 보냈다. 사진은 전남형 만원주택 홍보영상 이미지.

전남형 만원주택 홍보영상 무상 출연 눈길

“떠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 많아지길”

전남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고향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뜻을 보냈다. 전남도는 송가인이 재능 기부 형태로 ‘전남형 만원주택’ 홍보영상에 무상 출연했다고 4일 밝혔다.

단순한 홍보 참여를 넘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미담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총인구는 177만8000여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만명(1.15%) 줄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5년 42만 명이던 청년인구는 2024년 37만5000명으로 10.8% 줄었으며, 최근 4년 새 6.7% 감소해 지역의 미래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가인의 참여는 단순한 홍보모델 활동을 넘어,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은 “진도는 제 뿌리이자 삶의 무대”라며 “떠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도에는 이미 ‘송가인 마을’이 조성돼 팬과 관광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송가인 동네’로 불리는 이 공간은 새로운 관광 명소가 자리 잡았으며, ‘트로트 여제’의 고향을 방문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재능기부는 이러한 문화·관광 효과를 인구정책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송가인씨의 무상 출연은 연예인이 지역 인구 위기 극복에 적

절 동참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라며 “정책의 신뢰도와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 문제 해결이 곧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홍보영상은 송가인의 참여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 7월 진도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상징적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33평형 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가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 ‘광주천 플로깅 봉사활동’ 전개

대학생 홍보대사 30명 등 쓰레기 수거·제조 작업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대에서 임직원,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과 함께 ‘광주천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ESG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조작업을 진행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하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플로깅 세트(집게, 생분해 봉투 등 친환경 용품)를 활용해 환경오염을 최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대에서 임직원,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과 함께 ‘광주천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더했다.

봉사활동 중에는 지역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생활 속 플로깅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로깅에 참여한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은행 임직원과 함께 지역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돼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깨끗한 광주천을 가꾸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ESG 경영 내재화’를 목표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플로깅, 헌혈 캠페인, 저소득층 아동 후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윤제정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장 취임

“현장의 노하우로 광주 탄소중립 기여 노력할 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신임 원장에 윤제정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센터장(사진)이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7년 11월 2일까지이지만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장은 광주시장과 임기를 일치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민선 8기가 종료되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현 광주시장인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남은 임기가 보장된다.

윤 원장은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나노·식품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18년간 재직하며 바이오 기업 지원과 첨단 산업 분야



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또 물질생활화학공학 박사로서 각종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

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센터장은 “연구 경험과 산업 현장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광일 전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점자의 날’ (11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전남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점자도서관 방문 ‘점자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 학습권·정보접근 등 청취

이광일 전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점자의 날’ (11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전남 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시각장애인의 학습권과 정보접근권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체자료 제작 환경과 운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점자도서관은 전남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기관으로, 점자 소식지와 간행물, 오디오북, 큰글자 자료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해왔다.

이광일 부의장은 “일반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시각장애인도 점자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체자료 제작과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점자도서관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문체부 장관 표창

한국잡지협회 주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서

잡지산업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계간 ‘시와사람’(발행인 강경호·사진)이 최근 한국잡지협회 주최 제60회 ‘잡지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강경호 발행인은 1996년 5월 18일 시전문지 계간 ‘시와사람’을 창간해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분노와 절망의 정서에 머물러 있던 광주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강 발행인은 그동안 광주·전남의 새로운 시인을 발굴해 시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문학제 담론을 축적함으로써 이른바 ‘5·18 문학’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산업화 이후 등장한 생태주의 담론과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문학적으로 수용·변주하는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왔다.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가와 의 대담, 여름 시인학교, 각종 세미나, 시낭송회, 시화전 등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학의 저변 확대 또한 꾸준히 나눴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강경호 발행인은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으로 선출



돼 지역 문학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문화의 위상 제고에 힘써왔다. 그는 문학평론가로서 문학과 미술 등 인접 예술과의 소통과 융복합을 모색하고, 장르 간 상호텍스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문학의 외연을 확장한 공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학평론 부문 아르고 문학창작기금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와사람’은 2028년 여름호로 창간 30주년을 맞는다. 이에 맞춰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한국관광공사, 인도 메가 인플루언서 3명과 함께 K-스톱오버 홍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인도도 반한 ‘여수의 섬’ 2026년 세계로 뻗는다

메가 인플루언서 3인 참여…섬박람회 국제 홍보 나서

(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인도 메가 인플루언서 3명과 함께 K-스톱오버 홍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인도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전남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해양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플루언서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오동도, 향일암, 밤바다 크루즈를 둘러보며 섬과 바다, 역사 자원이 어우러진 여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살로니 미탈(인스타그래프 280만 팔로워)은 “여수 푸른 바다

와 섬이 정말 인상 깊었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내년 9월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방문 경험을 SNS 콘텐츠로 적극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인도 메가 인플루언서 초청뿐만 아니라 영국, 에스토니아 등 국제관광박람회 연계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앞서 공사와 함께 추진한 몽골 교육여행협회 초청 설명회, 국내외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박람회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인도 메가 인플루언서 방문은 여수 섬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전KDN,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 발대

ESG 경영·ICT 기술 영상 콘텐츠 제작

한전KDN은 최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소통 참여단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5개 팀을 선발했으며 내년 1월 초까지 운영된다. 발대식은 최종 선발된 국민소통 참여단과 한전KDN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소통 참여단은 한전KDN 제작 지원 중 선발된 멘토를 통해 ESG 경영 실적



한전KDN은 최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국민소통 청년 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 에너지 ICT 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 기반

의 영상물을 제작하게 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우리마을정원사와 상무시민공원 새단장 광주 서구세마을협의회(회장 손형주)는 최근 상무시민공원에서 ‘우리마을정원사 활동’의 일환으로 나무정리, 꽃잔디 및 수목 식재 등 녹색정원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서구세마을회